

### 서울시, 잠실한강공원 수영장 전면 보수

# 사업비 103억 투입... 자연친화 물놀이장·드라이가든 운영

#### 수영장 준공 30년... 노후화 심화 정밀안전점검서 C등급 판정받아 시, 자연경관 복원·도시재생 실현

잠실한강공원 수영장이 자연 친화형 물놀이장으로 변신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낡은 잠실한강공원 수영장을 전면 보수해 자연형 물놀이장을 조성, 2022년 6월 개장한다. 사업비로 총 103억1700만원이 투입된다.

잠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은 지난 1990년 8월 설치됐다. 준공된 지 30년이 돼 노후화가 심해졌고 지난해 정밀안전점검에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C등급을 판정받았다.

이에 시는 잠실한강공원 수영장을 자연경관 복원과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자연형 물놀이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잠실한강공원 수영장. (서울시)

자연 친화형 물놀이장은 ▲수영장과 연계해 상시 운영하는 '자연형 모래바치' ▲다양한 수심의 수조와 인피니티 풀 기능을 하는 '개방형 수영장풀' ▲계류형 물놀이 공간과 가족형 생태학습장으로 구성된 '자연형 계류공간' 등으로 꾸며진다.

시는 사계절 이용 가능한 공공 오픈

스페이스 구현을 목표로 잠실 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놀이장으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드라이가든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2022년 5월까지 공사비 97억원, 설계비 5억원, 감리비 1억1700만원 등 총 103억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다. 우선 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설계공모 대상부지는 잠실한강공원 수영장 부지와 주변 연계 지역을 포함해 총 4만5000㎡다. 공모보상비와 설계공모 관리 용역비 등 예상 소요 예산은 8500만원이다.

시는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현행 수준의 수영장 규모로 사업이 축소됐다"며 "다만 주변 부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설계공모는 기본계획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지난해 2~12월 '잠실 강수욕장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B/C(비용편익분석) 값이 1.01인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비용편익분석이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같은해 7월 진행된 1차 투자

심사에서 잠실 강수욕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고 잠실한강공원 수영장 이용자 감소에 따른 대안 시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사업을 재검토했다.

작년 9월 2차 투자심사에서는 현행 수준의 수영장 규모로 사업을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추진'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사업 면적은 4만5000㎡에서 2만7945㎡로 37.9%(1만7055㎡) 줄었다.

시는 설계공모 당선자와 계약을 맺고 총 사업비 4억1500만원을 투입해 올 12월까지 설계공역을 수행한다. 내년 2월 착공해 2022년 5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같은해 6월 개장한다.

시는 "기존 노후된 잠실한강공원 수영장을 국제 관광지구에 걸맞는 자연친화 물놀이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소극장·박물관 등 문화시설 매주 방역소독”

#### 서울시 선제적 방역대책 마련 시설 운영시간 따라 순차적 실시 바닥·손잡이·벽 등 소독제 분사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대학로 소극장 131곳과 박물관, 공연장 등 시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71곳의 방역소독을 매주 1회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방역소독은 각 시설의 운영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소독은 인체에 무해한 코로나바이러스 살균소독제(메디카바 살균소독액)를 방문객들의 신체가 닿는 바닥, 문, 손잡이, 벽 등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300석 이상 공연장과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소독시설로 분류된다. 시는 비용 문제로 개별 방역이 쉽지 않은 300석 미만 소극장 131곳에 10주간 매주 방역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가 운영하는 다중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화시설들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곳곳에 비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각 시설의 주된 기능에 해당하는 전시·공연·교육 등 행사는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축소 개최하고, 대규모 야외 행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취소 또는 연기

로 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우리동네 상권 정보, 무료로 확인하세요”

####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개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오는 7일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개편해 오픈한다.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는 중국집, 편의점 등 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역·상권별 생존율, 평균 매출액, 임대 시세 등 32종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재단은 정보 제공 업종을 기존 45개에서 100개로 2배 이상 확대했다. 독서실, 동물병원 등 서비스업과 소매업 정보가 추가됐다. 데이터 분석 기간은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세분화된다.

경영성과 측정기준 중 하나인 '투자수

익률'과 '손익분기점' 정보도 제공한다. 홈페이지 내 챗봇 서비스에서 본인이 설정한 위치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투자수익률과 손익분기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재단은 또 건물·도로 단위 소비 여력이나 매출액을 추정해볼 수 있는 '건물 단위·길 단위 상존 인구' 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

조사하고 싶은 상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서비스', 자영업 경영 통계를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신설됐다.

한광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가 제공하는 상권 정보가 예비창업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성공 창업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코닝-SNS’, 서울글로벌챌린지 우승

####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주제 대회

서울시는 세라믹 허니콤 필터를 환기구에 설치해 지하철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술을 선보인 '코닝-SNS'가 '서울글로벌챌린지'의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을 주제로 이번에 처음 개최된 서울글로벌챌린지는 도시문제의 혁신솔루션을 찾는 국제 경쟁형 R&D 경진대회다. 지난해부터 7개월에 걸쳐 세계 각국 기업이 제출한 106개 제품·기술이 경합을 벌였다.

종합우승팀인 코닝(Comning)은 스마트폰에 쓰이는 강화유리인 '고릴라 글라스'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이다. 코닝은 자체 개발한 세라믹 허니콤 필터 솔루션으로 국내기업인 SNS와 함께 승강장 미세먼지 저감에 도전했다. 현장에서 가장 높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



코닝-SNS의 지하철 승강장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서울시)

를 나타냈고 시민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전했다. 종합우승 팀에게는 5억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종합우승을 차지한 코닝-SNS 외에 승강장 분야 올스웰, 전동차 분야 한륜시스템이 분야별 우승으로 각 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올스웰은 공기 유동 제어기술로 기존 환기 설비 성능을 극대화했고, 한륜시스템은 전동차용 공기 정정기와 출입문 에어커튼을 선보였다.

/김현정 기자

## 서울 中企 10곳 중 3곳, 출산휴가 없어

#### 육아휴직 64.4% 시행

서울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출산휴가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해 8월 26일~9월 6일 서울 소재 중소기업 2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시행한다는 기업은 173곳(74.2%)이었다. 54곳(23.2%)은 제도가 있으나 시행하지 않

고 있었고, 6곳(2.6%)은 제도조차 없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회사는 46.4%였다.

육아휴직은 64.4%가 시행하고 있었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유산·사산 휴가 시행률은 20.6%, 태아 검진 시간 보장은 17.6%에 그쳤다.

경력단절예방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다. 조사 대상 기업의 98.7%가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알고 있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94.0%, 태아 검진 시간 보장은 90.1%, 유산·사산 휴가는 89.3%가 인지하고 있었다.

/김현정 기자

## 한국관광공사 1339 콜센터 통역 지원

한국관광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의 통역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서비스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등 8개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는 한국어로만 운영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외래관광객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관광공사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